

[보도자료]

“비혼 1인가구의 가족의식 및 생활실태조사”

취재 및 보도를 요청합니다.

배포처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언론 담당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홍보담당 김 인 희

(연락처: 02-3156-7296, 이메일: haza4122@kwdimail.re.kr)

보고서 관련 문의 : 김 혜 영 연구위원,

(연락처: 02-3156-7139, 이메일: khyoung222@kwdi.re.kr)

한국여성정책연구원(원장 김경애)은 2007년 『비혼 1인가구의 가족의식 및 생활실태조사』 보고서를 수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혼자서 생활하는 1인가구의 비중이 증가하여 전체 가구의 2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 비혼1인가구의 경제적 불안감과 노후불안감이 높은 것으로 확인하였다.

◇ 전체 가구의 20%가 혼자서 생활하는 단독가구

혼자서 생활하는 1인가구의 비중이 꾸준히 증가하여 전체가구의 20%를 차지함으로써 5가구 당 1가구는 혼자서 생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혼자서 생활하는 1인가구의 45%가 미혼으로 나타나 결혼에 대한 가치변화와 결혼의 진입장벽이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실제로 1인가구는 남성보다는 여성, 비노인 인구보다는 노인인구층의 비중이 높아 대부분 경제적 약자로 구성되어 있다는 지적이다.

◇ 비혼 1인가구의 경제적 불안감과 노후불안감 크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원장 김경애)의 2007년 12월에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비혼 단독가구의 경우 혼자서 생활하는 어려움으로 ‘경제적 불안감’(34.2%)과 ‘아프거나 위급할 때 대처하기 어려움’(30.1%), ‘외로움’(19.5%), ‘노후불안’(7.6%) 등을 꼽고 있었다. 또한 이들 비혼 1인 가구의 경우 자발적인 동기에 의해 비혼의 독신생활을 선택하기 보다는 직장이나 경제적 어려움, 결혼이 주는 부담 등과 같은 외재적 요인에 의해 결혼을 미루거나 회피하게 됨으로써 혼자서 생활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들 가구의 약 94%가 노후준비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집단의 38%는 아무런 노후준비를 하지 못하고 응답하고 있어 이들의 노후불안감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들은 향후 노후를 ‘혼자 보내거나’(15.5%), ‘복지/종교시설’이나 ‘마음에 맞는 공동체’(29.2%)에서 생활하겠다고 응답하고 있어 향후 노인단독가구나 노인시설에 대한 수요가 높아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 결혼이나 가족에 대한 기대에도 불구하고 쉽게 결혼에 진입하지 못하는 계층에 대한 지원책 마련이 필요

특히 이들의 절반가량은 노후에 배우자와의 삶을 꿈꾸거나 여건이 허락할 경우 결혼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점에서 건전한 결혼문화의 정착을 통한 결혼비용의 부담과 적령기를 둘러싼 사회적 편견이 변화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향후 안정적인 경제적 여건을 구축함으로써 미래 불안감을 해소하고, 취약계층에 속한 개인들의 결혼과 가족선택권의 장애요인을 최소화시킬 필요가 있다. 또한 일과 가정생활의 조화로운 병행이 가능한 사회적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가족생활이 주는 부담과 경력단절에 대한 우려를 해소시켜야 할 것이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여성정책 전문연구기관으로서 1983년 개원 이래 양성평등사회 실현을 위한 여성정책 Think-Tank 역할을 담당해왔다. 여성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를 수행하고 여성정책 및 여성능력 개발, 여성연구에 대한 정보제공을 통하여 여성의 사회참여, 복지증진 및 여성과 가족 그리고 국가발전에 기여하는 국책연구기관이다.

보도자료 끝.